

「99건축문화의 해」를 뒤돌아보며

Looking Back on the Year of Architecture

김한근 / 전 한국건축가협회장
by Kim Han-Geun

「건축문화의 해」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이때에 우리 건축인들의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 정부와 사회가 새롭게 관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건축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문화의 바탕이라고 했다. 예술과 과학기술을 함께 결합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훌륭한 환경과 공간적 형태를 만들어가는 예술적 가치의 중요성보다는 건축이 건설기술의 한 분야로 이해되고, 오랜동안 교육과 제도 모두 건설기술분야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건축물의 건설과정에서의 행정적 부조리나 부실공사 등으로 부정적 모습들만 비쳐져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고 하겠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건축의 지난 한세기를 돌아보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건축계에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계가 합심 협력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무척 다행스럽고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주요사업들중 밀레니엄 조형물 건립사업은 정부의 새천년위원회의 사업으로 넘겨져 현상설계를 거쳐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전면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건축문화자료관(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문화의 해 본사업과는 구분하여 건축계 자체 사업으로 준비키로 하였다. 한국건축 100년전은 우리나라의 개항기에서 서양건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적 시기에 맞추어 정리하고 건축자산정리사업은 역사적 의미있는 장소까지도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것은 참으로 큰 성과라고 하겠다. 건축과 짜즈와 만화와의 만남, 내가 가꾼 우리마을 Contest, TV 기획 Program, 중고등학교를 방문한 특강 등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 건축문화운동의 예라고 하겠다. 또한 건축사협회가 주관했던 ARCASIA Forum, UNESCO 한국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동서양문화비교 국제세미나, 건축문화 EXPO 등 대형행사와 한국의 21C대형건축전, 정보·문화·건축을 주제로 한 ICAS 21심포지움, 건축장인의 딸과 꿈 특별전과 같은 후원 및 공동추진행사를 비롯한 관련 국내외 단체들의 행사들은 건축문화의 해 사업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업기본계획은 98년 초기에 사업신청을 하면서부터 준비를 해왔고, 사업이 확정되면서 준비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의를 갖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계획의 기본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행사 시기가 99년 하반기에 집중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초기 전반기에는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별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였으므로 독촉을 받기도 하고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 뜻하지 않던 이런저런 일들도 겹쳐져서 언론들의 태도도 또한 냉담했고 우

리가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반에 접어들어 계획된 행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차츰 분위기도 호전되고 행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우리의 사업과 같이 년중 계속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행사들이 적당한 시간차를 두고 발표가 되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했다. 사업진행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홍보전략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도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것과 이러한 사업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있다고 할만큼 중요한 것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 99건축의 해 기간동안 전문지 등 신문·방송이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다른 어느해 보다도 건축에 관한 기획물과 연재물들도 많이 계속해서 취급해 주었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체사업예산은 진흥기금 10억원, 조직위원회 자체 모금하는 후원금 약 8억원을 합하여 약 18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별도 예산사업 20억원을 합하여 약 40억원 규모로 계획 추진되었다. (건축3단체와 기타 관련 기관·단체 등에 '문화의 해'를 위한 특별행사들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체 후원금의 모금활동은 전체 사업수행기간동안 마지막시기까지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일은 사업자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이 필요했다. IMF로 인한 모든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었고, 별도행사의 모금과 증폭되는 등 여건이 예상외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조직위원장 이하 재정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를 얻었고, 무엇보다 우리 건축인들 자신들의 기대이상의 참여와 협조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모금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일부 사업이 예산상에 차질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전체적으로 예산에 부족 없이 집행할 수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초기에는 후원금 모금 지연으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사업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제때, 제대로 예산을 지급하지 못한 미안한 맘을 금치 못하며 또 진흥원 지원금은 본 계획 사업에만 사용토록 되어있고, 후원금 모금에 여유가 없었기에 지역추진위원회에 재정적 도움을 주지 못했음이 못내 이쁘고 미안하게 생각된다.

'99건축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우리건축계가 함께 해오고 있는 모처럼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건축문화센터 건립추진이라든가 건축계를 하나가 되게하는 일 등을 추진해보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건축계는 오래전부터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왔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와 노력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사업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건축계가 하나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도 했으나, 조직위원회가 주도하려한다는 엉뚱한 오해로 무산됐고, 애써서 산파역을 하려던 일에 주도했던 분과 모두가 실망했고 현실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었다. 3단체로 나누어져있는 현실이 어색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나 사회여건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런대로 3단체가 서로의 역할을 잘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드시 모든 기존단체를 해체하여 하나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단체로 됐다고 하더라도 직능과 일정회원의 권익과 관련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와 같이 건축사사무소를 업으로 개업한 회원단체로서의 직능과 회원의 권익에 관하여는 다른 회원들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이다.)

우선은 큰 테두리 안에서 대외적으로 하나가 되고 각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설계경기문제, 국제문제, WTO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 등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함께 하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대로 조정,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어렵게 생각되는 일도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계가 하나로 되게 하는 일은 현실적인 바탕위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다소 무모하게 시작도 했지만 대가 없이 마무리 된 것은 전임·후임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행사위원들과 후원해 주신 건축인 여러분 모두의 공로라고 하겠다. 사실 건축문화의 해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겠다. 이를 계기로 건축계가 하나가 되어 해야 할 많은 일들과 여러 현안들을 큰 테두리에서 멀리 내다보며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다. WTO와 관련한 건축사 제도의 개선, 교육제도의 문제 등등 시급한 현안들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새해들어 건축학회와 건축가협회가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앞으로 3단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건축 문화의 해를 이어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한다. 폐막식에서 선언문을 통하여 99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듯이 건축문화의 해가 계속되길 바란다.